



金 鳳 烈 東原電子(株) 社長

技術部門 擴大로 國際競爭力 向上

벌써 甲子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매년 이맘 때면 느끼는 것은 한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또는 주어진 시간을 좀 더 效率的으로 使用하였다면 더 나은 成果를 達成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다. 그러나 時間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한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8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世界景氣는 84년에도 이어져 美國을 中心으로한 先進 西方國들의 經濟가 物價의 安定을 보이면서 安定的 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國際金利는 上半期 중 상승하였으나 하반기 중 다소 수그러드는 경향을 보여 債務國들에게는 외채상환에 조금의 어려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國內經濟도 역시 物價의 安定속에 國內消費의 增加와 美國 市場에서 國內 Color TV에 대한 Dumping 관정을 받는 등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年初 계획한 수출목표보다 해외시장의 호전으로 輸出의 증대 및 農産物의 풍작에 힘입어 약 7~8%의 成長을 보일 것으로 予想되어 좋은 局面을 보이고 있다.

또한 84년도는 특히 LA올림픽에서 우리가 歷史上 유례없는 금메달 6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하므로

서 스포츠를 통하여 國力을 海外에 과시한 한해이기도 하였다. 금년도 國內 株式市場의 場勢를 주도한 電子業種은 總生産額이 前年對比 약 26% 증가한 70억弗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약 37.8%가 증가한 44억弗에 이를 전망으로 타산업보다 훨씬 높은 成長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電子産業中에서도 특히 部品部門이 크게 成長할 것으로 전망된다.

東原電子가 참여하고 있는 오디오 업체는 지난 5월 政府가 産業育成政策의 일환으로 오디오 제품에 대한 特消稅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國內 需要가 급격히 증가해 전년도 전체 오디오 시장규모 약 1,300억원에서 금년도는 약 38% 정도 증가한 1,800억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國內 市場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國內 오디오 업체들에게는 금년도 정부 特消稅 인하조치가 업체발전에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輸出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의 오디오 市場을 약 350억弗로 추산할 때 세계시장의 약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國內오디오 업체의 발전 可能性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금년도 當社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技術開發 部門이다. 하이파이 제품의 특성 Life-Cycle이 2~

3년밖에 되지않아 조금만 방심하여도 世界市場에 침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發展하고 있는 電子工業의 原理를 製品에 적용하기 위하여 新技術 導入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當社에서 國內에서 처음 개발한 AM/FM 특성의 카스테레오 CRD-150 모델이 미국 夏季 시카고 전자전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어 특별전시관에 전시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둘째는 品質向上 部門이다. 品質 向上을 위하여 그 동안 오디오 업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온 자동삽입기를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실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불량을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社的 品質 관리제도를 정착시키므로써 우수한 하이파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當社가 생산한 리세서 RD2660 모델이 미국 소비자 단체가 매월 발행하는 「Consumer Reports」지에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品質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當社는 앞으로 더욱 좋은 品質의 製品을 生産하기 위하여 設備의 自動化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로 製造技術 部門發展에 역점을 두었다. 그 동안 축적된 기술로 제품 개발기술 부문은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국제 시

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기술부문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설비자동화와 함께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생산성을 고려한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對外競爭力을 強化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對外的 競爭力 向上과 동시에 적극적 마케팅 정책과 그동안 다져온 自社 브랜드 수출의 확충으로 輸出을 크게 증가시켜 금년말까지 전년대비 약 50%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競爭力 強化에 의한 輸出 增大는 政府에서 産業育成政策의 일환으로 취한 特消稅 인화조치도 커다란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해외수요가 안정적이었던 반면 오디오에 필요한 IC를 비롯한 주요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적기에 바이어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의 금년도 전자부문중 가장 신장률이 높은 부문을 部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部品業體

들도 국내 完製品 業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部品을 開發하여 供給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일본의 대부분의 主要 가전 제품회사들이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 國內市場에 침투했다는 점이다. 물론 낙후된 기술을 향상시키고 新技術을 導入하기 위하여 外國技術을 導入한다는 事實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낙후된 技術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단지 브랜드의 使用目的으로 外國企業이 국내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國內企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 생각된다. 현재 오디오 업체수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체 수를 감안하면 낮은 국내 市場規模와 낮은 구매력 수준으로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企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보다는 海外市場에 의존도를 높여 나아가

야 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企業은 研究開發의 投資擴大, 高級技術人力 確保, 그리고 品質水準 향상 등으로 國際競爭力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84년도는 政府의 尖端技術部門에 대한 투자의 확대, 特消稅 引下에 따른 國內오디오 시장의 확충, 그리고 企業體의 國際競爭力 향상을 위한 研究 開發部門 投資 增大와 生産性 향상으로 앞으로 電子産業의 발달을 위한 基盤을 확충하였던 한해였으며 특히 당나라로서는 11월 30일 수출의 날에 2,000만弗 수출의 탑과 동시에 오디오업계, 나아가 電子業界 發展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정부로부터 수상한 것은 매우 뜻깊었던 일로서 기억된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電子工業이 금년보다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전자인들에게 幸福과 幸運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